

한국교회 위기 극복 방안, ‘예배’ 다음으로 ‘지역사회 돌봄 강화’ 높아!

한국교회는 예배와 선교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돌봄 사역’을 통해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사회 변화와 지역사회 요구 증대 속에서, 교회의 돌봄 역할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공동체적 책임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국민일보가 올해 3월,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남녀 성도 1000명과 한국교회 담임목사 500명을 대상으로 ‘교회의 돌봄 사역(서로돌봄) 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한국교회가 교회 안과 밖에서 어떤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미흡한 부분과 향후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짚어보았다. 아울러 목회자와 성도가 인식하는 돌봄 사역의 중요성과 방향성 등도 함께 분석했다.

이번 <넘버즈 299호>는 ‘교회의 돌봄 사역’을 다룬다.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에 더욱 민감히 반응하며, 사랑과 연대의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돌봄 사역(서로돌봄) 조사

조사개요

구 분	성도 조사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한국교회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총 500명 (유효 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e)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0\%p$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목회자 조사는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5년 2월 28일 ~ 2025년 3월 10일 (총 11일간)	2025년 2월 27일 ~ 2025년 3월 6일 (총 8일간)
조사 주체	국민일보	
조사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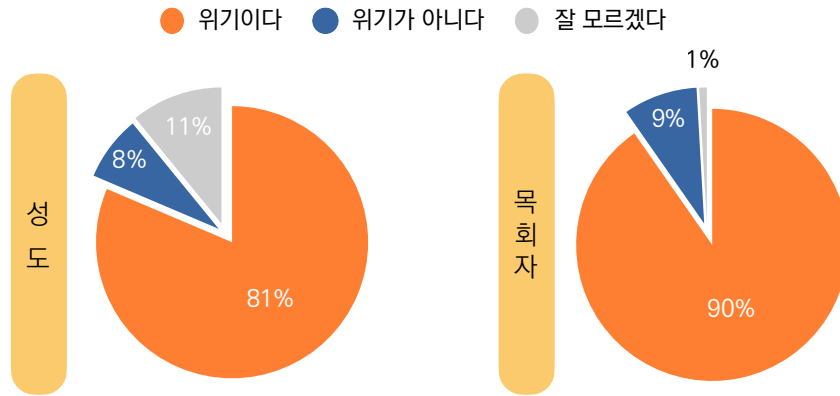
01

[돌봄의 필요성]

목회자·성도 대부분,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데 공감

- 현재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것에 대해 목회자(90%)와 성도(81%) 대부분이 동의했으며, 목회자가 성도보다 더 높은 위기 의식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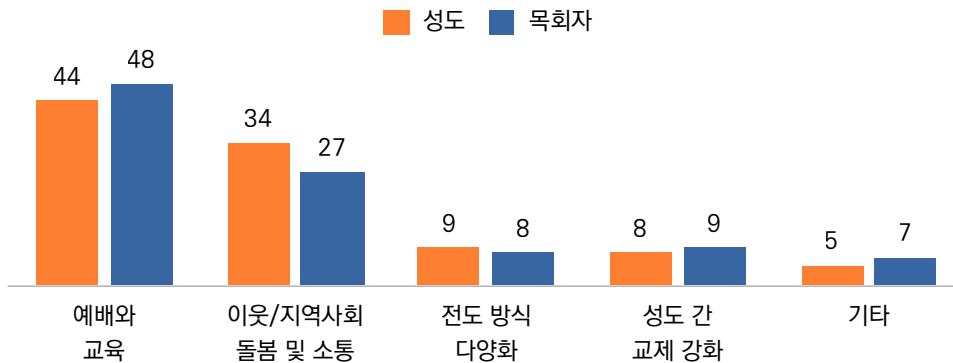
[그림]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동의 정도



한국교회 위기 극복 방안, '예배' 다음으로 '지역사회 돌봄 강화' 높아!

- 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위해 강화해야 할 점으로는 '예배와 교육'(성도 44%, 목회자 4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예배 다음으로 '이웃/지역사회 돌봄 및 소통'(성도 34%, 목회자 27%) 강화 요구가 높게 나타났는데, 지역사회 돌봄이 한국교회 위기 극복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림] 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위해 강화해야 할 점 (한국교회 위기를 느끼는 성도와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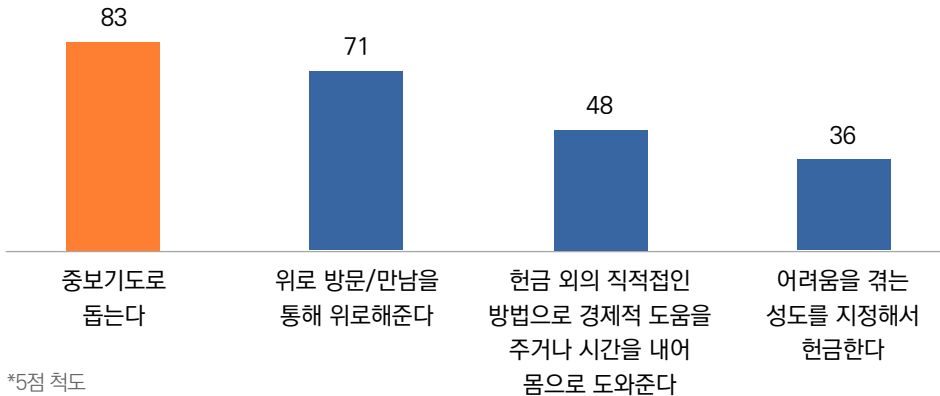
02

[교회 내 돌봄 현황]

성도 간 돌봄, 성도 3명 중 1명 이상은 경제적 도움 등 실질적 지원!

- 교회 성도 간 상호 돌봄 실천 수준(긍정률)을 묻은 결과, 성도 10명 중 8명 이상(83%)은 '중보기도'로, 10명 중 7명(71%)은 '위로 방문/만남'을 통해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돕고 있었다.
- '현금 외 직접적인 방법의 경제적 도움이나 시간 봉사'(48%), '어려움 겪는 성도를 위한 지정 현금'(36%) 등 실제로 돕는 경우도 교인 10명 중 3명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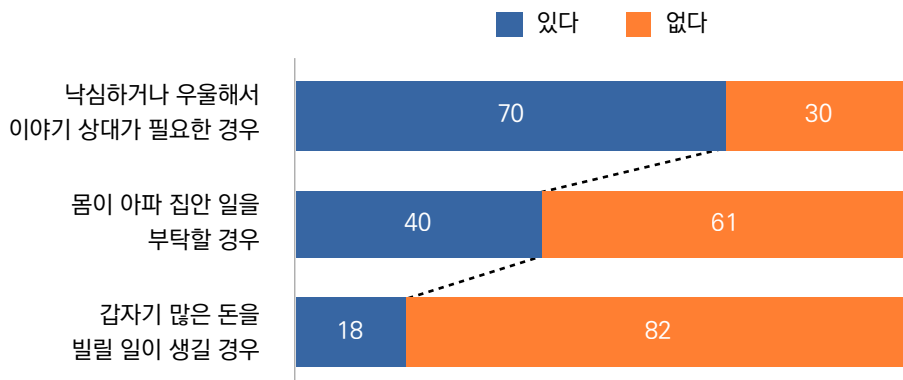
[그림] 성도 간 상호 돌봄 실천 수준 (성도, '약간+매우 그렇다' 비율*, %)



교회 내 도움망, 정서적 지지는 높지만 물리/경제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

-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사회적 고립도를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한다. 이 항목을 적용해 교회 내 도움망(↔고립도) 수준을 살펴본다.
- 먼저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있는 경우'는 70%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몸이 아파 집안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40%, '갑작스러운 큰 금액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18%로 물리적, 경제적 도움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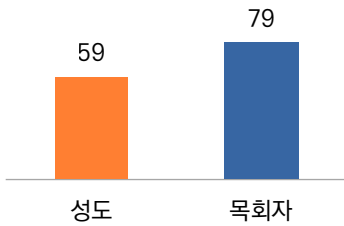
[그림] 교회 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성도, %)



소그룹 참여(관여) 높을수록 성도 간 관심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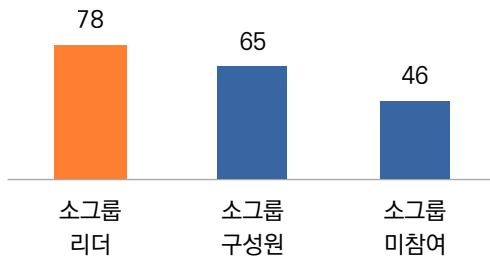
- 교회 내 성도 간 형편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묻은 결과, 성도 스스로는 59%가 '관심 있다'고 응답했으나, 목회자는 이를 79%로 더 높게 평가했다.
- 소그룹 참여 여부에 따라 관심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소그룹 리더와 구성원은 각각 78%, 65%가 관심 있다고 응답한 반면, 소그룹 미참여자는 46%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

[그림] 교회 내 성도 간 관심 정도
(‘약간+매우 관심 있다’ 비율*, %)



*5점 척도

[그림] 소그룹 참여별 교회 내 성도 간 관심도
(성도, ‘약간+매우 관심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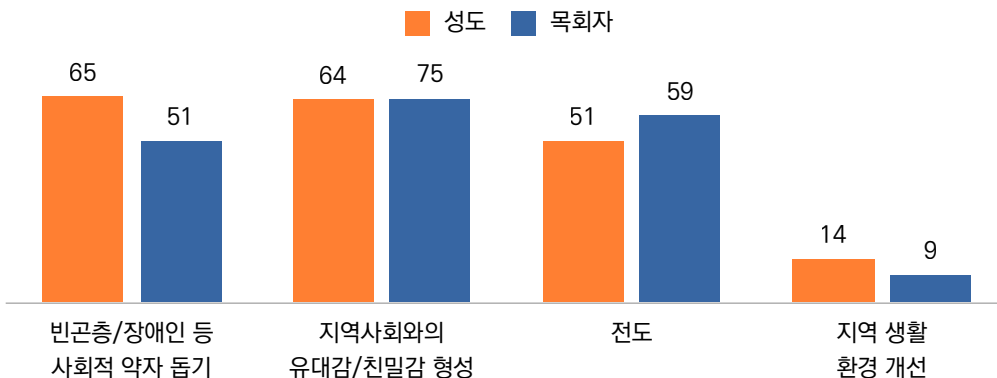
03

[지역사회 돌봄]

교회가 지역사회 위해 해야 할 일, ‘유대감/친밀감 형성’!

-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사역을 묻은 결과, 성도는 ‘빈곤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돕기’(65%)와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친밀감 형성’(64%)을 비슷하게 꼽았다.
- 반면 목회자는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친밀감 형성’(75%)을 1순위로, 그다음으로 ‘전도’(59%), ‘빈곤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돕기’(51%) 순으로 응답했다.
- 목회자와 성도 모두 ‘유대감·친밀감 형성’을 핵심 돌봄 사역으로 인식하고 있어, 관계 중심의 지역사회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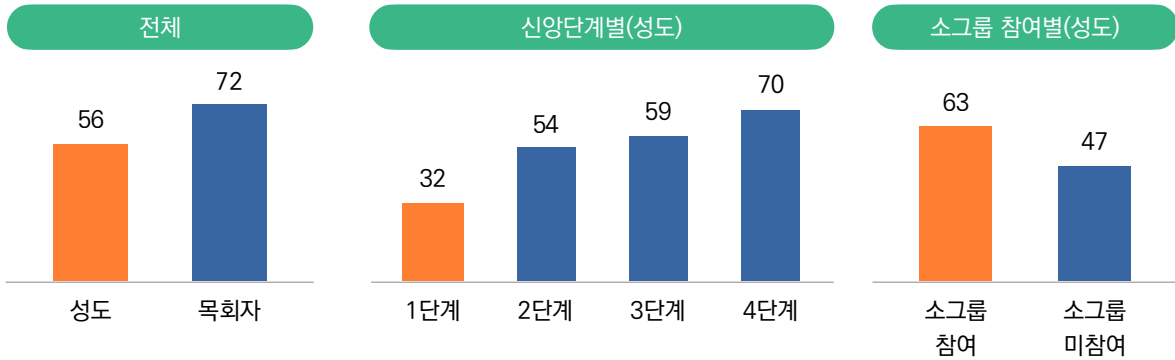
[그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사회 돌봄 사역 (1+2순위, 상위 4개, %)



신앙 수준 높을수록, 지역 돌봄 책임 의식 높아!

-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 돌봄을 해야 하는지를 묻은 결과, ‘성도’ 56%, ‘목회자’ 72%가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해, 목회자가 성도보다 더 높은 책임 의식을 보였다.
- 신앙단계별로는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꼭 해야 한다’ 응답 비율이 상승했으며(1단계 32% → 4단계 70%), 소그룹 참여자(63%)가 미참여자(47%)보다 높았다.

[그림] 교회가 지역사회 ‘돌봄 꼭 해야 한다’ 비율* (%)



*3점 척도 : 하면 좋지만 꼭 해야 할 일은 아니다, 꼭 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Note) 신앙단계별 설명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교회의 향후 돌봄 대상, ‘다음세대/이주민’ 부상!

- 현재 교회가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돌봄 사역은 ‘노인’ 34%, ‘건강 취약 계층 및 가족’ 32%, ‘아동·청소년’ 28% 순이었다. 그러나 향후 강화해야 할 돌봄 사역에서는 아동·청소년(36%)과 이주민·다문화가정(27%)이 1,2위를 차지했다.
- 이는 교회 돌봄 사역의 우선순위가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노인·건강 취약 계층에서 다음세대와 이주민 사역 중심으로 변화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표] 지역사회 돌봄 사역 : 현재 중점 진행 vs 향후 강화 영역 (목회자, 1+2순위)

	현재 중점적으로 진행 중인 돌봄 사역*	향후 강화해야 할 돌봄 사역*
1	노인 34%	아동·청소년 36%
2	건강 취약 계층 및 가족 32%	이주민·다문화 가정 27%
3	아동·청소년 28%	노인 23%
4	이주민·다문화가정 14%	건강 취약 계층 및 가족 20%
5	장애인 13%	한부모 가정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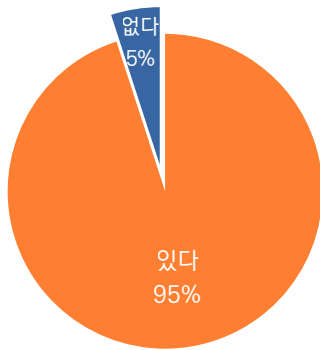
*각각 현재 지역사회 돌봄 사역 진행 중인 목회자, 지역사회 돌봄 사역 강화 의향 있는 목회자 대상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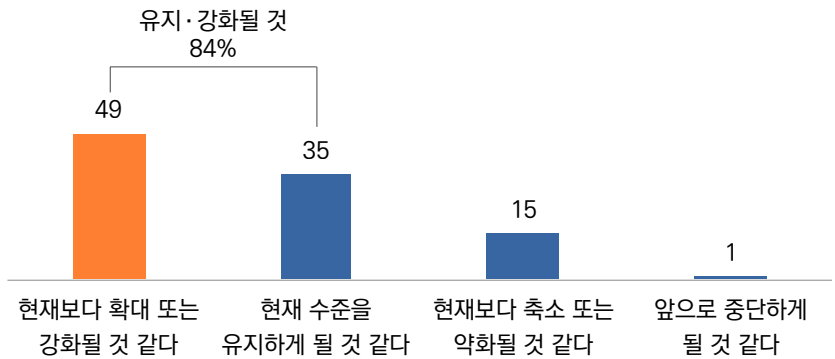
[돌봄 사역 전망과 기대] 목회자 절반, 향후 지역사회 돌봄 사역 강화하겠다!

- 지역사회 돌봄 사역 경험이 있는 교회는 전체의 95%로 대다수였는데, 이들 지역사회 돌봄 경험이 있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향후 시무 교회의 지역사회 돌봄 사역 전망을 묻은 결과, '현재보다 확대 또는 강화될 것 같다'는 의견이 절반가량(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35%, '현재보다 축소 또는 약화될 것 같다' 15%였으며, '중단' 응답은 1%에 그쳤다.
- 목회자 10명 중 8명 이상(84%)이 앞으로도 돌봄 사역이 유지·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해, 지역사회 돌봄이 일회성 사역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제임을 보여준다.

[그림] 교회의 지역사회 돌봄 사역
경험 여부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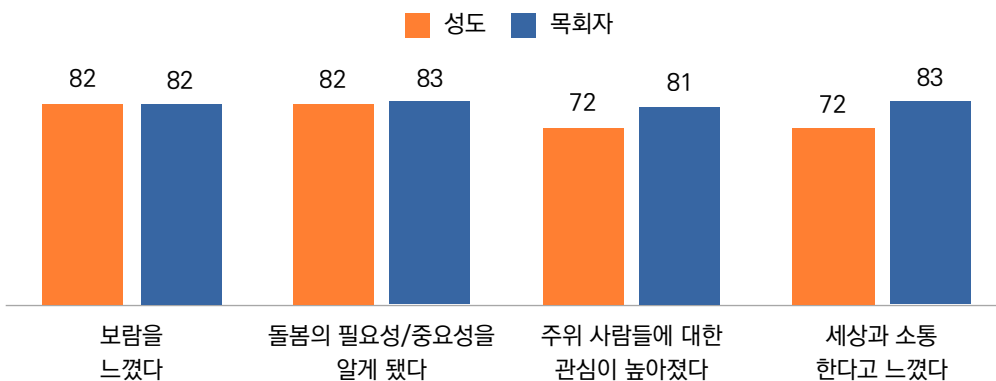
[그림] 향후 교회의 지역사회 돌봄 사역 예측 (지역사회 돌봄을 해 본 목회자, %)



돌봄 사역의 유익, '세상과의 소통'!

- 지역 봉사/돌봄 사역을 통해 얻는 유익으로 성도는 돌봄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82%), '돌봄의 필요성/중요성을 알게 됐다'(82%)에 8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 목회자의 경우 성도에 비해 돌봄을 통해 얻는 유익이 비교적 높았으며, 특히 '세상과 소통한다고 느꼈다'(목회자 83%, 성도 72%)와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목회자 81%, 성도 72%) 항목에서는 성도보다 약 10%p 높은 동의율을 보여, 돌봄 사역이 목회 현장에도 긍정적 변화를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지역사회 돌봄 사역을 통해 얻는 유익 ('약간+매우 그렇다' 비율*, %)



*5점 척도

이번호 요약

1. 한국교회 위기 극복 방안, '예배' 다음으로 '지역사회 돌봄 강화' 높아

- 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위해 강화해야 할 점으로는 '예배와 교육'(성도 44%, 목회자 48%)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 예배 다음으로 '이웃/지역사회 돌봄 및 소통'(성도 34%, 목회자 27%) 강화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목회자 절반, 향후 지역사회 돌봄 사역 강화 하겠다!

- 지역사회 돌봄 경험이 있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향후 시무 교회의 지역사회 돌봄 사역 전망을 물은 결과, '현재보다 확대 또는 강화될 것 같다'는 의견이 절반가량(49%)으로 가장 많았다.

3. 교회의 향후 돌봄 대상, 1,2순위로 '다음세대/이주민' 부상!

- 현재 교회가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돌봄 사역은 '노인' 34%, '건강 취약 계층 및 가족' 32%, '아동·청소년' 28% 순이었다. 그러나 향후 강화해야 할 돌봄 사역에서는 아동·청소년(36%)과 이주민·다문화가정 (27%)이 1,2위를 차지해, 교회 돌봄 사역의 우선순위와 흐름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적]성경적 돌봄: 이론과 실제 (김경수 저, 목양)

관련 성경 구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목회 적용점

오늘날 교회는 신앙의 위기와 사회적 신뢰 하락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돌봄 사역'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예배와 교육만으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속에서,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성도 간의 실제적 돌봄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 본질적 사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도 간 돌봄은 기도와 위로 중심으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경제적·생활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그룹 참여도가 높을수록 성도 서로간 관심이 깊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목회자는 성도보다 지역사회 돌봄에 있어 더 높은 책임 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는 교회가 돌봄 사역을 공동체의 중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목회 현장에서는 첫째, 교회 밖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 세대와 이주민에 대한 돌봄은 교회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로서 장기적 비전 속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최근 출간된 우리 연구소의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지역사회 예산 지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와 밀착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적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

둘째, 교회 안에서는 소그룹을 돌봄의 핵심 기반으로 삼아, 성도 간 실제적 관심과 돌봄이 확장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돌봄 사역을 단순한 자선에 머물게 하지 말고, 이웃의 필요를 중심에 두는 성숙한 신앙 행위로 자리매김하도록 설교와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